

“수시검사 확대”로 골재 품질 높인다

-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…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

-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*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 - *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,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 ↑
→ 수시검사 적발률: 25% (7/28개 업체) > 정기검사 적발률: 5% (38/761개 업체)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하였다.
 - 수시검사 결과,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, 0.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(4개)가 가장 많아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 -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,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·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였다.
 -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,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, 골재 저장 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,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 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「골재채취법」 개정안(1.16. 발의)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,
 - 골재의 생산, 판매,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도 추진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“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하여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윤석진 (044-201-3539)



참 고

골재채취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 수시검사 결과 ('23년)

□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: 7개 업체, 10개 항목 적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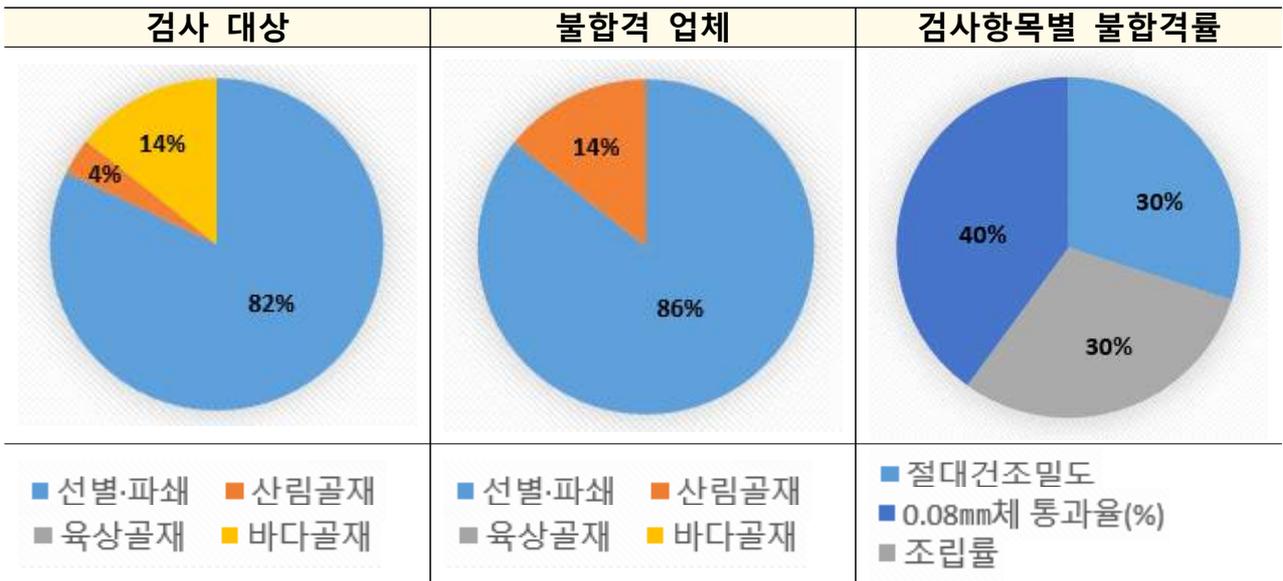
【 검사 대상 및 불합격 업체 수 】

업 종	선별·파쇄	산림골재	육상골재	바다골재	총 계
검사 대상	23	1	0	4	28
불 합 격	6	1	0	0	7

【 검사항목별 불합격률 】

구 분	품질항목						총 계
	절대건조밀도	흡수율	조립률	안정성	0.08mm체 통과율	편장석률	
불 합 격 (중복 포함)	3	-	3	-	4	-	10

【 골재채취업체 수시검사 결과(그래프) 】



□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: 21개 업체, 24개 항목 적발

【 검사항목별 불합격률 】

구 분	품질시험 미 실시 또는 관리 미흡	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	골재 혼입 등 저장관리 미흡	총 계
불합격(%) (중복 포함)	5 (21%)	15 (63%)	4 (17%)	24 (100%)